

4/12~5/22

사이초 입적 1200 주기 기념 특별전

사이초와 천태종의 모든 것

2021년은 덴고대사 사이초(767-822)의 입적 1200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사이초는 평등사상을 설파한 『법화경』에 매료되었고, 그 가르침을 초석으로 삼은 천태종이 일본에 널리 퍼지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엔라쿠지 절을 무대로 한 일본 천태종의 기원을 살펴보고, 도에이산 간에이지 절의 창건으로 평화로운 시대의 버팀목 역할을 하며 에도시대까지 이어진 천태종의 역사를 소개합니다. 소중한 절 전해 내려온 전국 각지의 귀중한 문화재를 통해 물줄기처럼 일본 문화를 전하는 천태 미술의미를 한껏 느껴 보시길 바랍니다.



보살 유희좌상(여의륜관음보살로 전해짐) 에히메 도묘지 절 소장 (전기간 전시)

6/14~7/18

특집전시

요사 부손 ‘오쿠노 호소미치 두루마리그림’을 발견하다



국보 쇼토쿠 태자 및 천태 고승 초상 10폭 가운데 승려 사이초 초상 호고 이치조지 절 소장 사진 제공: 도쿄문화재연구소 (전기 전시: 4월12일~5월1일)

요사 부손(1716-1783)은 에도시대의 하이쿠 시인이자 화가입니다. 하이쿠 시인 마쓰오 바쇼(1644-1694)를 매우 존경하여 바쇼의 하이카이 기행문 『오쿠노 호소미치』를 주제로 삼은 작품을 많이 제작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오쿠노 호소미치』 전문을 필사하고 관련된 그림을 함께 그린 작품은 지금까지 4점밖에 알려지지 않았으나, 최근 새로이 1점이 발견되어 도합 5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작품은 역사 자료로만 알려졌던 것을 포함한 여러 필사본 중에서도 가장 초기 작품으로, 기준작으로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기하게도 『오쿠노 호소미치』 기행문이 교토에서 1702년에 간행된 후로부터 딱 320년이 되는 올해에 발견된 이 두루마리그림을 관련 교토국립박물관 소장품과 함께 최초로 선보입니다.

특집전시

— 장소 —
헤이세이 지신관 1F-2

7/30~9/11

특별전

간신지 절과 곤고지 절 -가와치나가노 지역의 불교 성지-

현재, 오사카부 가와치 나가노 시는 산골짜기 지역에 위치하여 교토에서 고야산으로 이어지는 교통로가 만나는 지점에서 번성했던 역사를 지닙니다.

진언 밀교의 대사찰 ‘간신지 절’과 ‘곤고지 절’은 이 지역에서 신앙의 중심지였으며, 또한 남북조시대(1333-1392)에 남조 세력의 거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교토국립박물관은 2016년부터 2019년에 걸쳐 두 절의 문화재를 전수 조사했습니다. 그 성과를 바탕으로 기존 명품 문화재와 함께 새로 밝혀진 일본 중세와 근세의 문화재를 소개합니다.



국보 해와 달이 있는 사계절 산수 그림 병풍 (오른쪽 폭) 오사카 아마노산 곤고지 절 소장

특별전

— 장소 —
헤이세이 지신관 2F·1F



중요문화재 보생여래로 알려진 좌상 오사카 간신지 절 소장 사진 제공: 공익재단법인 비주쓰인 사진 촬영: 가나이 모리오



오쿠노 호소미치 두루마리그림 요사 부손 글·그림

10/8~12/4

특별전

차노유

-살아 숨 쉬는 교토의 차 문화-

중국에서 들어온 차 문화는 시대를 거듭하며 점차 일본의 스타일로 변화해 왔습니다. 교토 주변 지역에서는 차 재배가 활발했으며, 중국에서 들어온 차 도구를 감상하는 문화, 사찰과 신사 입구에서 참례객에게 차를 파는 문화와 함께 널리 차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차노유(茶の湯)’라는 독자적 문화가 생겨나면서 ‘차’는 일본 문화의 한 상징으로 세계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토에는 다도 각 유파의 뿌리 깊은 종가(家元, 이에모토)와 차 문화 종사자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교토라는 지역이 차노유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특별전에서는 지금도 살아 숨 쉬는 교토의 차 문화를 각 시대의 명품을 통하여 소개합니다. 이 전시를 통해서 끊이지 않고 이어져 온 차노유의 역사와 함께 다인들의 미의식과 멋을 함께 해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중요문화재 만바다에서 돌아오는 돛단배[원포귀범] 목계 그림으로 전해짐 교토국립박물관 소장



중국 사과 모양 친한 가루차 통[분린 차이레] 별명: 파리[호즈키] 분린



국보 큰 이도 다완 (조선 생산 가루차 찻사발) 별명: 기자에온 교토 고타안 절 소장



국보 교행신증[교교신쇼]> (반도본) 신란 지음 교토 진종 오타나카 소장

1/2~1/29

특별전시

토끼 세상

-계묘년 토끼해를 축하하며-

매해 새해를 축하하며 준비하는 특별전시입니다. 2023년 토끼해를 기념하여 미술 속 토끼들이 전시실에 모여들었습니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에게 즐거운 전시입니다.



가로줄 언덕 무늬 짧은소매통 기모노[고소데] (부분) 교토국립박물관 소장

2/4~3/5

특별전시

히나마쓰리와 인형

화려한 궁전 장식 모형[고텐카자리 비나]를 중심으로 시대에 따른 여러 히나 인형을 선보이고, 교토에서 제작된 교(京) 인형도 함께 소개합니다.



교호 비나 인형 (천황과 황후 인형) 교토국립박물관 소장

특별전시

— 장소 —
헤이세이 지신관 1F-2

특별전

— 장소 —
헤이세이 지신관

3/25~5/21

탄생 850년 기념 특별전

승려 신란

-정토진종 개척자의 생애와 그 보물-

2023년은 일본 불교의 한 종파인 정토진종을 창시한 승려 신란(1173-1262)의 탄생 85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는 교토에서 태어나 히에이잔 산에서 수행하고, 승려 호넨의 제자가 되었으나, 탄압을 받아 에치고(지금의 니가타) 지역으로 유배됩니다. 이후 간토 지역으로 향해 이치고 교토로 되돌아온 그의 생애와 가르침은 지금도 많은 이들을 매료시킵니다.

신란이 직접 쓴 아미타부처의 이름(名号, 묘고) 글씨, 그의 저작, 초상화, 두루마리그림 등 정토진종 각 유파의 사찰이 소장한 보물을 통하여 부처의 가르침을 구하고 포교에 힘쓴 신란의 일생을 소개합니다. 신란이 태어나고 임종을 맞이한 이교 교토에서 신란과 만나보시면 어떨까요?